#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현황

□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수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

□ 과거에 비해 아시아 신흥국에 대한 현지 금융사 인수 등을 통해 영업력을 확대

□ 최근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특정 신흥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필요성이 대두

**□ 2018년 3월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수는 총 433개로 2011년 이후 은행을 중심으로 한 증가세가 2016년 이후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**

— 2010년 이후 저성장·저금리 기조가 심화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수는 2011년말 359개에서 2018년 3월말 433개로 크게(20.6%) 성장

• 2018년 3월말 기준 전체 해외점포 중 은행이 전체의 43%(186개), 금융투자사 37%(116개), 보험사 19%(84개), 여신전문금융회사(이하 여전사)가 10%(45개)를 차지

— 은행의 해외점포는 2010년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다 2015년부터 증가폭이 다소 둔화

• 2012~2014년 동안 해외점포수가 매년 6% 이상 증가하였으나 되어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3.9% 증가에 그침

• 중국의 경기 둔화 및 국내 기업의 중국진출 위축 등으로 2014년 이후 성장성이 약화

— 금융투자회사의 해외점포수는 2011년 이후 감소를 지속하다 2017년 소폭 증가

• 2011년 은행과 비슷한 수준인 130개에서 2018년 3월말 116개로 축소

• 영세한 규모로 인한 지속적인 영업손실 등이 원인

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던 여전사의 해외점포수는 2016년을 기점으로 급증

• 2015년 26개→2016년 33개(전년대비 26.9% 증가)→2017년 44개(전년대비 33.3% 증가)

— 보험사의 해외점포수는 2014년을 기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 증가로 전환

**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점포 현황**

(단위: 개)

| | 2011년말 | 2012년말 | 2013년말 | 2014년말 | 2015년말 | 2016년말 | 2017년말 | 2018년 3월말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은행 | 134 | 143 | 152 | 162 | 170 | 178 | 185 | 186 |
| 금융투자 | 130 | 125 | 124 | 117 | 113 | 112 | 115 | 116 |
| 보험 | 74 | 79 | 80 | 83 | 84 | 81 | 85 | 84 |
| 여전 | 18 | 20 | 23 | 26 | 26 | 33 | 44 | 45 |
| 계 | 359 | 369 | 382 | 391 | 396 | 407 | 431 | 433 |

자료: 금융감독원

□ **2011년 이후 해외점포 확대는 은행 및 여전사의 아시아 신흥국 해외점포를 중심으로 확대된 반면 주요 선진국 금융중심지의 경우에는 정체**

— 전체 국가 중 중국과 미국의 비중이 축소되긴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

- 전체 해외점포 중 중국과 미국의 비중은 각각 15%, 12.7%로 여전히 높으나 2011년말대비 각각 4.3%, 1.8% 축소되어 특정국 쏠림 현상이 소폭 완화

— 상대적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진출은 활발

- 인도, 인도네시아, 베트남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진출이 크게 확대
- 2015년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외국은행의 자국은행 인수합병 규제 완화로 2016년부터 은행과 카드사를 중심으로 진출이 확대

— 과거 금융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출하였던 홍콩, 싱가포르, 영국 등의 금융중심지는 영업손실 부진 등으로 소폭 확대 혹은 정체[1)]

- 증권사의 해외점포 자기자본 규모가 대부분 100억 이하로 영세

**해외점포 국가별 현황**

(단위: 개, %)

| 국가 | 2011년말 | 2017년말 | 국가 | 2011년말 | 2017년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미국 | 50(14.5) | 55(12.8) | 베트남 | 41(11.9) | 50(11.6) |
| 싱가포르 | 15(4.4) | 18(4.2) | 인도 | 10(2.9) | 18(4.2) |
| 영국 | 24(7.0) | 26(6.0) | 인도네시아 | 12(3.5) | 24(5.6) |
| 홍콩 | 37(10.8) | 35(8.1) | 중국 | 66(19.2) | 64(14.8) |

주 : 괄호안은 전체 점포수(2011년말 340개, 2017년말 431개)에서 해당국 점포수가 차지하는 비중(%)
자료: 금융감독원

1) 금융감독원, 2018.04.19, 2017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, 보도자료.

**업권별 신흥국 진출 현황**

(단위: 개)

| | 베트남 | | 브라질 | | 인도 | | 인도네시아 | | 중국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2011 | 2017 | 2011 | 2017 | 2011 | 2017 | 2011 | 2017 | 2011 | 2017 |
| 은행 | 14 | 19 | 4 | 4 | 6 | 15 | 5 | 8 | 18 | 16 |
| 보험 | 8 | 11 | 1 | 1 | 2 | 1 | 3 | 5 | 16 | 18 |
| 증권 | 10 | 7 | 1 | 1 | - | - | 4 | 6 | 23 | 16 |
| 운용 | 5 | 8 | 1 | 1 | 1 | 1 | - | - | 5 | 8 |
| 여전 | 4 | 5 | - | 1 | 1 | 1 | - | 5 | 4 | 6 |
| 계 | 41 | 50 | 7 | 8 | 10 | 18 | 12 | 24 | 66 | 64 |

자료: 금융감독원

□ **최근 진출이 확대된 아시아 신흥국의 해외점포에서는 과거와 달리 현지 영업력 확대를 도모**

— 영업기능이 없는 사무소의 비중은 2011년말보다 축소된 반면 현지법인 및 지점은 확대되어 2017년말 기준 전체 해외점포의 68%를 차지

- 과거 2010년 이전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초기 해외진출은 주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 및 수출, 무역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무소 중심

— 현지 영업 강화를 위해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 등을 통한 현지법인 설립 및 이에 기초한 子지점[2] 증설 등이 활발[3]

- 특히 동남아 국가들에서 지점 또는 법인 신규설립을 통한 진입 규제가 점차 강화되어 현지 금융사 인수합병을 통한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[4]
-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소액대출업, 할부금융업 등으로 여전사의 진출이 활발

**업권별 해외점포 진출 형태**

(단위: 개)

| | 사무소 | | 영업소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| | 지점 | | 현지법인 | |
| | 2011 | 2017 | 2011 | 2017 | 2011 | 2017 | 2011 | 2017 |
| 은행 | 38 | 56 | 96 | 128 | 56 | 76 | 40 | 52 |
| 증권 | 33 | 15 | 63 | 51 | 3 | 0 | 60 | 51 |
| 운용 | 10 | 17 | 14 | 33 | 0 | 1 | 14 | 32 |
| 보험 | 43 | 44 | 31 | 41 | 9 | 9 | 22 | 32 |
| 여전 | 6 | 5 | 10 | 39 | 1 | 1 | 9 | 38 |
| 계 | 130 | 137 | 214 | 294 | 69 | 87 | 145 | 207 |

자료: 금융감독원

2) 현지법인이 관리하는 지점으로 직접 설립 또는 현지 금융회사 인수시 양도받은 지점

3) 금융감독원, 2018.05.04, 2017년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동향 및 재무현황, 보도자료.

4) 금융감독원, 2017.04.07,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동향 및 재무현황, 보도자료.

□ **금년 3월 이후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자 특정 신흥국에 해외점포가 집중된 우리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필요성이 대두**

— 2015년 이후 진출이 증가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현지 영업 확대로 외화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

- 2018년 3월말 기준, 국내 금융사의 외화대출 규모는 1,068.4억달러로 2015년 이후 매년 10% 이상 증가를 지속
- 또한 해외진출 법인의 유가증권 투자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5년말 476억달러에서 2018년 3월말 1,128.9억달러에 달함

**형태별 대외자산 현황**

(단위: 억달러)

| | 2015년말 | 2016년말 | 2017년말 | 2018년 3월말 |
|---|---|---|---|---|
| 외화대출금 | 823.8 | 917.6 | 1,020.4 | 1,068.4 |
| 외화유가증권 투자 | 476 | 806.6 | 1,092.3 | 1,128.9 |
| 외화지급보증 | 128.6 | 140.7 | 142.2 | 138.5 |
| 익스포져 총계 | 1,428.4 | 1,865 | 2,254.9 | 2,335.8 |

자료: 금융감독원

— 올 3월 이후 신흥국의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감독당국은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금융기관이 집중된 지역의 대외 익스포져 확대에 주목[5)6)]

- 2018년 3월말 기준 4개 취약 신흥국(아르헨티나, 터키, 브라질, 인도네시아)에 대한 대외 익스포져는 132억달러로 이 중 인도네시아가 94.4억달러를 차지
- 감독당국은 인도네시아 등 우리 금융기관이 집중된 국가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

선임연구원 김보영

5) 금융감독원, 2017.06.11, 국내 금융회사의 대외 익스포져 현황, 보도자료.

6) 대외(거래상대방 본점 국적 기준) 외화대출, 외화유가증권투자 및 외화지급보증 합계를 의미.(금융감독원 보도자료)